



<https://higoodday.com/news/1001007>

미주 한인 선출직 '총 231 명'

미주한인 | 정치 | 2024-10-22 09:29:22

미주 한인 선출직

‘코리안아메리칸인스티튜트’ 발표

뉴저지 83 명으로 최다, 뉴욕 9 명

1954 년 하와이주의원 필립 민씨 최초

미국에서 지난 70 년간 230 명이 넘는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 뉴저지주의 한인 선출직이 83 명으로 가장 많았고, 뉴욕주에서는 9 명의 한인 정치인이 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.

비영리기관 ‘코리안아메리칸인스티튜트’(KAI)가 최근 발표한 ‘미주한인정치인연감’에 따르면 지난 1954 년 이후 지난 70 년간 선출직으로 활동한 한인은 모두 231 명으로 집계됐다.

연감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 선출직은 지난 1954 년 하와이주의원으로 당선된 필립 민씨다. 이어 알프레드 호윤 송씨가 1960 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팍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본토에서 공직을 맡은 최초의 한인 선출직으로 이름을 올렸다. 송씨는 1963 년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에 당선됐고, 이어 1967 년에는 캘리포니아주상원의원에 뽑히는 등 한인 선출직 정치인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.

첫 연방하원의원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는데 지난 1993 년부터 1999 년까지 활동한 김창준 전 의원이었다.

한편 KAI ‘미주한인정치인연감’에는 2023 년까지 각 지역별 한인 선출직의 이름과 직책, 재임 기간,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. 온라인 웹사이트(ka.institute/korean-american-political-almanac)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.

<서한서 기자>